

42년간 없던 지진 9일간 54화...해남 지진 '미스터리'

“천둥 소리 같았다” 주민들 불안... 기상청 관측망 설치 원인 조사 조선시대 지진 기록... 단층 재활성화 추론, 추가 발생 대비해야

40년 넘게 한 번도 지진이 나지 않았던 해남에서 최근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4일 오전 해남 지진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고 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진앙(지구 내부의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주변에 실시간 관측망 4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통 지진은 단층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이 지역은 1978년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26일 전까지 지진이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층이 있는지 조사된 적이 없다. 해남군은 지진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해남 지난 4월 26일부터 3일 오전까지 54차례 지진=간헐적이자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3일 오전 11시까지 54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기상청이 통보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지난달 28일(규모 2.1), 30일(규모 2.4), 이달 2일(규모 2.3), 3일(규모 3.1) 등 4건 포함됐다.

전날 발생한 지진은 1월 30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3.2 지진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도 10여건 접수됐다. 이날도 1.2~1.9 규모의 지진이 10건 발생

했다. 원인은 현재까지 '미스터리'다.

◇조선시대 1436년 지진 발생 기록=단층 재활성 추론=해남에서는 조선시대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만한 단층이 있고, 이 단층이 최근 재활성화 한 아나나 추론이 나온다. 5일 기상청이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을 토대로 발간한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을 보면 세종 18년인 1436년 2월 8일 전라도 해진(海珍)과 강진현에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 해진은 현재 해남과 진도를 합친 고을 명이다. 1978년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 지진이 이어지자 기상청은 지난 4일 진앙에 실시간 임시 관측소를 설치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남 지역에 조사된 단층이 없었기에 초반에는 원인 모를 지진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남에도 인지하지 못한 단층이 있다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역사 기록을 보면 결국 이 지역에 단층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단층이 재활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이처럼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군(群) 지진’, ‘연속 지진’은 한반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해

남 이전에는 2013년 6~9월 보령에서 98회, 2019년 4~10월 백령도에서 102차례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단층 분석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둥치는 소리 같았다” 주민들 불안, 해남군 지진대응팀 가동=“꼭 천둥 치는 소리 같았어요.” 규모 3.1 지진의 진앙지 인근 마을인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이장 이점(52)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과광’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별다른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40년간 한 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남군에 이례적인 군집형 지진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에도 1.2~1.9 규모의 지진이 10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작은 규모의 지진이 큰 지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잘 지키고 평소 예방책을 세워놓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상시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남군은 5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진대응팀을 구성해 가능하고 오늘(6일)부터 산이면을 시작으로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해 추가 지진에 대비하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연합뉴스



4일 오전 최근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 간척지 보리밭이 평온한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6일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1시까지 원인 알 수 없는 54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 재단 추진단 구성 노동계 추천 단장 등 다음 달 출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위해 상생 지원팀, 재단 설립 준비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무보수 명예직인 추진단장은 광주시가 노동계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해 4급 상당 전문 임기제 상생 일자리 보좌관, 일반직 직원 4명,

일반 임기제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설립 목적에 맞춰 상생 일자리 재단의 기능, 역할을 설계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추진단장을 위촉하고 인력 채용 계획을 마련해 서류·면접 등 전형을 거쳐 다음 달 중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하는 노동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난달 한국노동총연맹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 근간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파기와 함께 사업 불참을 선언한 뒤 광주시가 설립을 약속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동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지난달 29일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문 대통령 ‘기상 청와대’ 어린이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날 기념 특별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어린이날인 5일 기상공간 속에 마련된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 온라인을 통해 함께 여행하며 청와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5·18 40주년 내뿜을 성과를 성과 없네...고민 깊어가는 여권

5·18 헌법전문 수록 요원

진상규명위 능자 출범 원성

청와대 40주년 메시지 주목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의지를 적극 천명해왔지만 40주년을 맞아 실제로 내놓을 만한 성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요원한데다 5·18 진상 규명도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능자 출범,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후 조사관 채용과 교육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조사 개시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외교부가 미국 정부 측에 요청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등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

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진상 규명의 성과가 미미한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각종 기념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되는 것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내놓을 메시지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무 및 시민사회 수석실을 중심으로 지역 원로와 소장파 교수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어느 정도 진전된 진상 규명의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것이 없어 곤혹스럽다”며 “일단 정부 차원의 발목 잡기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능자 출범,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후 조사관 채용과 교육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조사 개시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외교부가 미국 정부 측에 요청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등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

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앞서 5·18 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보완 입법 등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서 현실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모든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다는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공동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차지한 만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상 규명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모토인 ‘대동세상’을 포스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대와 나눔의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스마트한 국토
가치 있는 정보
국민의 공사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합니다.

LX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LX홍보대사 박연경 MBC아나운서